

스포츠에서의 대동(大同) 문화와 성(誠) 사상 활착(活着) 연구*

A Study on the Daedong (大同) Culture at Sports and For the Graft-take (活着) of the Sincerity Thought

이돈준(강원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Don-Jun, Lee** *The Academy of kangwon Korean Studie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용(中庸)』의 성(誠)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가치를 탐구해 봄으로써 스포츠가 ‘모두가 잘 사는 포용 사회’, 즉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만드는 실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중용』은 성즉리(性即理)를 근거로 하여 인간의 도리(人道)를 하늘의 도리(天道)에 대비시킴으로써 지선(至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중용』은 그 원리를 천(天), 성(性), 도(道), 교(教) 개념으로 전개한다. 그 결과 『중용』의 성(誠) 사상에 기반한 스포츠의 철학적 함의는 신체활동을 도심(道心) 충만의 인간 활동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스포츠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화합의 정신이 충만한 화이부동의 문화 활동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신체활동 문화인 스포츠를 비근의 대상으로 보고, 『중용』의 성(誠)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신체활동이 최선(最善)을 택하는 지혜의 표출 방법일 수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스포츠가 천지(天地)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인간의 대동(大同) 문화로 제고(提高)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ports can become a target of action to create an ‘inclusive society where everyone prospers’, that is, a Daedong society (大同社會) by exploring the value of ‘Harmony but not Uniformity’ (和而不同) by applying the concept of Sincerity (誠) of the ‘Doctrine of the Mean (中庸)’ to sports. Based on Nature is in fact principle (Xing ji li 性即理), by contrasting the human way (人道) with the heavenly way (天道), the “Doctrine of the Mean” enables us to advance to the realm of virtue (至善). The ‘Doctrine of the Mean’ develops the principle into the concepts of Heaven (tian 天), Nature (xing 性), The way (dao 道), and Teaching (Jiao 教). Thus, by regarding sports, which is a culture of physical activity, as an object of familiar (卑近), and applying the concept of Sincerity (誠) of the Doctrine of the Mean to sports, this paper investigated that physical activity can be a way of expressing wisdom to choose best virtue (最善). In the results,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 of sports based on the Sincerity thought of the Doctrine of the Mean makes it possible to view physical activity as a human activity with the fulfillment of the moral mind (道心). Therefore, sports can have value as a cultural activity of ‘Harmony but not Uniformity’, full of the spirit of harmony in the conflict structure in which interests collid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sports will be enhanced as a human Daedong (大同) culture that participates in heaven and earth (天地) Hwayuk (化育; nature makes all things and makes them grow).

Key words : The Doctrine of the Mean (中庸), Sincerity (誠), Harmony but Not Uniformity (和而不同), Daedong (大同) Culture, Sports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93568)

** majah73@hanmail.net

1. 서론

2019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提高)를 위하여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경제와 사회의 균형에 기반하여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은 ‘잘 살’이라는 보편적 가치 속에서 함께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즉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동사회(大同社會)를 함의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시류에 편승한 이해와 권리 등이 강조되는 다원주의적 갈등을 겪고 있다.

시류에 따라 특정한 가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대화 상황보다 진영의 주의 주장을 대변하는 극단의 논리가 대세를 이룬다. 극단의 논리가 성행하면서 진영에 따라 선악을 달리하는 추종과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다(신정근, 2019: 6).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립과 갈등의 극단 논리를 타개하고 화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에 강조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시대 정신은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道], 즉 보편적 진리[眞]를 뜻한다. 만약 보편적 진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이 전개된다면 이는 이견(異見)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을 위한 비전은 제시되었지만, ‘왜 대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대 정신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적 요구이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 삶과 관계되는 도리, 즉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참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은 문화로도 드러난다. 왜냐하면 문화는 생활보다 우수하고, 선형적으로 보편타당할 때 그 중요도와 의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 가운데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작용은 신체[몸]를 통해서 표출된다. 따라서 그 신체는 평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시대 정신이 충만하여 그것이 밖으로 스며나오는 신체이어야 한다(이기동, 2012: 187; 김홍식·안용규, 2019: 174).¹⁾

과거 선현들은 하늘의 도리[天道]와 인간의 도리[人道]를 대비시킴으로써 시대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익혔다.²⁾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문헌이 『중용(中庸)』이다. 『중용』은 천도(天道)로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을 성(誠) 개념을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포용하게 한다.³⁾ 그리고 만물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竝育]을 보고, 우리의 시선이 교정[竝行]될 수 있게 한다(신정근, 2019: 145).⁴⁾ 이에 본 연구는 『중용』의 성(誠)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화이부동의 가치를 탐구해 몸으로써 스포츠가 ‘모두가 잘사는 포용 사회’, 즉 대동사회를 만드는 실천 대상이 될 수 있을

을 논구하고자 한다.

『중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성(性)을 품부(稟賦) 받은 존재임을 밝힐 수 있게 한다.⁵⁾ 선현은 취해야 할 선(善) 중에 차이를 고려하여 최선(最善)을 택하는 지혜를 배웠다.⁶⁾ 그리고 그 지혜의 구체적 실행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 드러난다.⁷⁾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선에 밝아야 한다는 점이다.⁸⁾ 선에 밝음은 인심천명(人心天命) 본연의 모습을 살피서 지선(至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우응순, 2016: 249).⁹⁾ 『중용』은 이 같은 깨달음에 근거하여 정성(誠)을 다한다면 능히 다른 사람의 정성이 다하게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¹⁰⁾ 즉 성(誠) 개념은 나를 이루고 남도 이룰 수 있게 하는 근원이다.¹¹⁾

『중용』은 성(誠)의 실천이 시대변화에 적응할 때,¹²⁾ 일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¹³⁾ 여기서 시대 적응은 시대 정신이 변화에 반영된 결과이다. 성(誠)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인간에게는 성(性)이 구비되어있기 때문이다.¹⁴⁾ 단지 일반인은 도리[道]를 행하면서도 이를 모를 뿐이다.¹⁵⁾ 만약 이와 같은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비근(卑近)한 대상으로도 하늘의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비근 개념은 흔히 주위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알기 쉽고 실생활과 가까운 대상이다. 이 때문에 누구나 정성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도는 신체를 통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¹⁶⁾ 이에 논자는 신체활동 문화인 스포츠를 비근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논구하고자 한다.

현대에서 스포츠는 인생에 비유될 정도로 사회의 공통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스포츠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반영은 스포츠가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이상적 활동이 아니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학준, 2016: 4).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우리의 삶에서 비근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인들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물론 이는 스포츠의 순기능적 강조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성(性)이 구비되어있다고 보는 『중용』에 근거하면 스포츠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화합을 목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의 실천 장(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 『中庸』「一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6) 『中庸』「六章」,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執其兩端”

7) 『中庸』「二十章」, “仁者, 人也, 親親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주희 이전의 시대에는 인과 仁이 통용되었다. 그래서 “仁은 인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주희는 『中庸集註』에서 “仁者, 人也”를 “人, 指人身而言.”라고 해석한다.

8) 『中庸』「二十章」,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9) 『中庸集註』「二十章」, “謂反求諸身而所存所發, 未能眞實而無妄也.”

10) 『中庸集註』「二十二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11) 『中庸』「二十五章」,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12) 『中庸』「二章」,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13) 『中庸』「十三章」,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14) 『中庸』「一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15) 『周易』「繫辭傳」上5,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16) 『中庸集註』「二十二章」, “所以爲人之道, 各在當人之身.”

1) 『中庸』「二十章」, “故, 爲政在人, 取人以身, 修身以道, 脩道以仁.”

2) 『中庸』「二十章」,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3) 『中庸』「六章」,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4) 『中庸』「三十章」, “萬物竝育而不相害, 道竝行而不相悖.”

따라서 『중용』의 성(誠)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삶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있어 신체활동이 최선을 택하는 지혜의 표출의 방법일 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또한 성(誠) 사상에 대한 스포츠의 철학적 함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스포츠를 화합의 정신이 충만한 문화 활동으로 가치를 지니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가 경쟁 활동이라는 이해를 넘어 보편적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화이부동의 문화로 의미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II. 중용의 길[道]

남송(南宋)에 이르러 주희는 성명(性命義理)을 근간으로 사회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이에 주희는 『사서집주(四書集註)』 편찬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론체계를 확립한다. 그중 『중용』은 인간이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삶은 어떤 우주적 원리에 근거하는지를 밝힌다(박재희, 2019: 271). 『중용』에서 밝히는 원리는 하늘의 도리(道)이다. 그 도가 천명(天命)이다. 천명의 명(命)은 령(令)이다. 이 때문에 천명은 거부할 수 없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된다. 그 명령이 성(性)이다. 주희는 그 성을 리(理)로 설명한다.¹⁷⁾ 이로써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명제인 성즉리(性卽理)가 성립된다.

성즉리의 성립은 우주의 구동 원리와 인간의 삶의 구동 원리가 같다는 표준(極)을 세운 것이다.¹⁸⁾ 하지만 『중용』은 성(性)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자사(子思, B.C.483? ~B.C.402년?)가 도통(道統)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중용』을 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맹자가 제시한 사단이 일례일 수 있다. 맹자는 사랑과 연대의 인(仁), 도리와 정의의 의(義), 문화와 예절의 예(禮), 시비 판단과 지혜의 지(知)의 네 가지 덕목을 가리킨다. 맹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천명은 사람에게 인의예지의 네 덕목을 본성으로 실천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신정근, 2019: 109). 그리고 본성에 따르는 것이 술성(率性)이다.¹⁹⁾

술성 개념은 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공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공자는 “사람이 도를 크게 하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크게 하는 것은 아니다.”²⁰⁾ 또한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²¹⁾라고 말했다. 만약 도가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이미 도가 아니다. 『중용』의 술성은 도가 성(性)을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성인(聖人)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일반인도 능히 도리를 알고 그 도리를 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²²⁾ 주희는 『중용』에서

제시하는 도를 길[路]로 해석한다.²³⁾ 이는 『중용집주(中庸集註)』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술(率)은 따름이고, 도(道)는 길[路]과 같다. 사람과 물건이 각각 그 성의 자연을 따르면 일상생활[日用事物之間]하는 사이에 각각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도라는 것이다(성백호, 2019: 99).²⁴⁾

만물이 각각 그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인간도 일상에서 행해야 할 도리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에서 제시하는 길은 걸어가야 하는 길이자 행해야 할 도리가 된다(우웅순, 2016: 19). 『중용』은 인간이 본성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도리를 실천한다면 곧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도의 길을 알고 도리를 실천한 이상적 인간상이 성인이다.²⁵⁾ 그리고 만약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일반인(賢人)이라도 도를 확장해 나가면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용』은 바로 이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설정은 개인에서 나아가 문물제도까지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에서 확인된다.

수(修)는 품절(品節)함이다. 성(性)과 도(道)가 비록 모두 한가지이지만 기품(氣稟)이 간혹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편차(偏差)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이 사람과 만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로 인하여 이를 품절하여 천하의 법을 마련하니, 이것을 일러 ‘교’라 칭한다.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이 이것이다.²⁶⁾

수도 개념에서 수는 술성, 즉 도가 성(性)을 따라가는 길을 닦는다는 것이다. 품절의 품은 인간의 개성에 따른 편차를 의미한다. 절(節)은 대나무 마디와 같이 어떤 대상에는 역량적 범주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효(孝)로 예를 들면 유약한 개성을 지닌 사람은 온화함에 지나치고, 강한 개성을 지닌 사람은 엄격함에 지나친 것처럼 사람마다 효의 기준과 실천이 다를 수밖에 없다.²⁷⁾ 이 때문에 도를 닦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성, 역량, 나아가 사회적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려가 전제되었을 때 예악형정(禮樂刑政), 즉 문물제도와 같은 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교(教)이다.

교는 품절을 고려하여 문물제도, 즉 현대적 관점으로 문화를 도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된다. 그런데 그 문물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천명에 대

17) 『中庸集註』「一章」. “命, 猶令也, 性, 卽理也.”

18) 『中庸集註』「中庸章句序」. “蓋自上古至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 有自來矣.”

19) 『中庸』「一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20) 『論語』「衛靈公」28. “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21) 『中庸』「十三章」.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22) 『中庸集註』「十三章」. “道者, 率性而已. 固衆人之所能知能行者也.”

23) 『中庸集註』「一章」. “道, 猶路也.”

24) 『中庸集註』「一章」. “率, 循也. 道, 猶路也. 人物, 各循其性之自然, 則其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也.”

25) 『中庸』「二十章」. “從容中道, 聖人也.”

26) 『中庸集註』「一章」. “修品節之也. 性道雖同, 而氣稟或異, 故不能無過不及之差. 聖人因人物之所當行者, 而品節之, 以爲法於天下, 則謂之教, 若禮樂刑政之屬, 是也.”

27) 『四書大全』「中庸章句大全」上. “黃氏曰, 修道二字, 須就道上及人氣稟上兼看. 道是大綱之名. 如孝是事父之道. 然孝中有多少曲折, 人氣稟不同, 柔者過於和, 剛者過於嚴, 則於孝道之曲折, 必有不中節者. 此所以著爲品節, 使之盡其道也.”

한 인식과 술성하고자 하는 엄격함이다. 물론 인간에게는 이미 성(性)의 덕이 갖추어져 있다.²⁸⁾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치중화(致中和)가 요구될 정도로 가변성을 지닌다.²⁹⁾ 이로 인해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목적하는 사람에게는 신독(慎獨)의 자세가 필요하다. 신독은 홀로 있을 경우라도 도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외(敬畏)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주희는 경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道)는 일용사물(日用事物)에 미땅히 행하여야 할 리(理)이니, 모두 성(性)의 덕(德)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서 사물마다 있지 않음이 없고 때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이 때문에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떠날 수 있다면 어찌 술성(率性)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군자(君子)의 마음이 항상 공경함과 두려워함을 보존하여 자신이 비록 보고 듣지 않더라도 또한 감히 소홀해서는 안된다(성백호, 2019: 100).³⁰⁾

경외의 경은 경계하고 삼가는 일이다.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중용』에서 외, 즉 두려움은 어떤 외적 공포에 위협을 느껴 무서워하는 불안이 아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성(性)을 염두에 두고, “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자기반성적 경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자는 “천하와 국가를 고르게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녹봉도 사양할 수 있고, 칼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중용은 능히 할 수 없다.”³¹⁾라고 말한다. 나아가 신독하는 자세로 삶에 임하더라도 한 달을 지켜 내지 못함을 한탄한다.³²⁾ 이에 주희는 다음의 예를 들어 그 실천 방법 제시하고 있다.

공자가 말했다. 순(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닌 분이시다. 순임금은 문기를 좋아하시고, 일상의 말에도 살피기 좋아하셨고, 나쁜 말은 숨기고 좋은 말은 드러내시며, 좋은 것 가운데 양쪽 끝을 파악하여, 그 알맞은 도리를 백성에게 쓰셨다. 이로써 순이 순임금이 되신 까닭이다.³³⁾

순임금은 고대 중국의 이상적 군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공자는 순임금의 행동이 술성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 내용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쓰기보다는 타인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묻고,

일상적 대화와 행동에 관심을 두는 일이다. 이는 도를 매일 쓰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술성의 행함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순임금의 이와 같은 실천은 선 가운데 최선의 태함이다. 공자는 순임금의 예를 통해 최선의 태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용』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천명지위성, 술성지위도, 그리고 수도지위교에 대한 이해는 순임금의 평가됨과 같이 자신을 명성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타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일임을 알게 한다.

III. 성지(誠之)의 스포츠 적용

주희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성(性)이 있음은 알지만, 하늘에서 나온 것은 알지 못하고, 일에 도가 있음은 알지만, 성(性)에서 말미암음은 알지 못한다(성백호, 2019: 99).”³⁴⁾라고 말한다. 그런데 주희의 이와 같은 지적은 사람들이 술성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순임금의 예시로 볼 때 사람은 품절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선의 끈을 놓지 않고 현실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을 택하여 굳게 잡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⁵⁾ 이때 선을 굳게 잡는 정신이 성(誠)이고, 이를 지키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성지(誠之)이다.

성(誠)이 진실무망(眞實無妄)한 상태라면 성지는 사람의 정성으로 실행해야 할 바이다.³⁶⁾ 그렇기 때문에 성(誠)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다. 『중용』은 이 둘을 대비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성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이 있다. 그런데 『중용』에서의 선은 선과 악의 대비적 관점에서의 어떠한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중용』의 선은 『주역(周易)』의 “원(元)은 선의 으뜸”과 같다. 『주역』에서의 원은 곧 인(仁)이다. 『주역』 건괘(乾卦) 괘사(卦辭)는 “건(乾,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사덕(四德)으로 말한다. 이는 건괘 「문언전(文言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元)은 선(善)의 으뜸이요, 형(亨)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利)는 의(義)에 화합함이요, 정(貞)은 일의 근간이다. 군자가 인(仁)을 체득함이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며, 모임을 아름답게 함이 예(禮)에 합할 수 있으며, 물(物)을 이롭게 함이 의(義)에 조화될 수 있으며, 정고(貞固)함이 일의 근간이 될 수 있으니, 군자는 이 사덕을 행하는 자이다.³⁷⁾

28) 『中庸集註』「一章」, “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29) 『中庸』「一章」,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30) 『中庸集註』「一章」, “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若其可離, 則豈率性之謂哉. 是以, 君子之心, 常存敬畏, 雖不見聞, 亦不敢忽, 所以存天理之本然, 而不使離於須臾之頃也.”

31) 『中庸』「九章」,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爵祿, 可辭也, 白刃, 可蹈也, 中庸不可能也.”

32) 『中庸』「七章」, “人皆曰. 子知, 擇乎中庸而不能期月守也.”

33) 『中庸』「六章」, “子曰. 舜, 其大知也與. 舜, 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34) 『中庸集註』「一章」, “蓋人, 知己之有性而不知其出於天, 知事之有道而不知其由於性, 知聖人之有教而不知其因吾之所固有者裁之也.”

35) 『中庸』「二十章」, “誠者, 擇善而固執之者也.”

36) 『中庸集註』「十六章」, “誠者, 眞實無妄之謂.”

37) 『周易』乾卦「文言傳」,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體仁, 足以長人, 嘉會, 足以合禮, 利物, 足以和義, 貞固, 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원형이정은 곧 인의예지이다. 이에 대하여 주희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도는 천하의 달도(達道)요, 인(仁)은 천지(天地)가 물건을 내는 마음으로 사람이 얻어서 태어난 것이니, 『주역』 건괘 「문인」에 이른바 “원(元)은 선(善)의 으뜸”이다(성백효, 2019: 148).³⁸⁾ 따라서 주희는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 일반인은 선을 밝히기 위해 경주해야 함을 알리고 있다. 주희가 강조한 그러한 노력이 명선(明善)이다. 이때의 선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선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상을 체인(體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선은 필연적으로 신체적 수행을 요구한다(이선경, 2018: 18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聖人)에 이르지 못하면 인욕(人慾)의 사사로움이 없지 못하여 그의 덕(德)이 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서 반드시 선(善)을 택한 뒤에야 선을 밝게 알 수 있고, 힘쓰지 않고는 도(道)에 맞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굳게 잡은 뒤에야 몸을 성실히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사람의 도란 것이다(성백효, 2019: 161)³⁹⁾.

성인의 덕은 태어난 그대로 혼연한 천리이다. 이 때문에 후천적인 작위,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 하지만 진실무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 존재다. 이들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誠)을 의식적으로 추구한다. 물론 일반인은 성인이 되지 못한 이상 인욕의 사사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성을 밝히려는 것에 대한 뜻을 굳게 하여 나아가야 한다(우웅순, 2016: 253). 그런데 천명을 부여받은 이상 사람이 행할 도리는 신체로 드러난다.⁴⁰⁾ 신체를 통해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심이 충만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지이다. 논자는 스포츠에서도 성지 한다면 도심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공자는 비근한 대상으로부터 인간의 도리를 찾았다. 그래서 도불원인(道不遠人)이라 한 것이다.⁴¹⁾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류에게 있어 비근한 문화 활동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스포츠는 주변에서 보고, 듣고, 나아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인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가 멀리 있지 않듯이, 스포츠를 통해서도 도는 행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스포츠를 도를 추구하는 성지의 활동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는 드물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논자는 여러 이유 가운데 문제의 중심을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도덕적 당위로 삼는 동양적 사유구조, 특히 성즉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에 두고자 한다.

성즉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도덕적 당위와 더불어 도덕법칙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면에 주목하게 하

는 성리학적 명제이다. 『중용』은 이 같은 명제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재근거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법칙을 제시한다. 이는 성즉리의 명제에 기반한 새로운 시각 제공은 스포츠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의 어떠한 측면이 문제가 되어 도의 추구 활동으로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고, 『중용』은 이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논자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전환에 있어 스포츠의 전면적 혁신을 위한 과제, 인권과 복지에 주목한다.

세계 스포츠계는 지난 시간 동안의 스포츠 현상이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부정적이고 타락한 방식과 방향으로 경도되어가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별 국가는 물론, IOC, UNESCO, EU, FIFA 등 많은 국제단체에서 인간성 회복, 다인종 공존, 공정성, 지속 가능성 등과 같은 가치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의창, 2019: 19).

세계 각국은 스포츠를 통해 인간, 교육, 그리고 문화 가치를 개선하고자 의도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용』은 그 해결 방법이 인(仁)의 행함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힌다.⁴²⁾ 여기서 인(仁)은 생생(生生)과 관련된다.⁴³⁾ 생생은 인간의 생명 활동이 천지자연의 대덕(大德)과 관련 있으며 그 완전성이 성(性)으로 드러남을 알린다.⁴⁴⁾ 곧 『중용』의 인(仁)은 인간 신체에 성(性)이 있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그 성(性)이 천명에서 기인 됨을 알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용』의 인(仁)은 세계 스포츠계가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성지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포츠의 또 다른 전면적 혁신을 위한 과제는 복지 문제이다.

스포츠 복지의 핵심은 스포츠권이다. 스포츠권은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가만의 책무로는 완전하지 않다. 국가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의 시민의식과 문화도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홍덕기, 2019: 32).

과거 우리나라는 국민의 성금으로 올림픽 참가비를 마련할 만큼 최빈국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만큼 발전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패러다임의 정착은 요원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불편하게 하는 체육계

38) 『中庸集註』「二十章」, “道者, 天下之達道. 仁者, 天下生物之心而人得以生者, 所謂元者善之長也.”

39) 『中庸集註』「二十章」, “未至於聖, 則不能無人欲之私, 而其爲德, 不能皆實. 故, 未能不思而得, 則必擇善然後, 可以明善, 未能不勉而中, 則必固執而後, 可以誠身, 此則所謂人之道也.”

40) 『中庸集註』「十三章」, “則所以爲人之道, 各在當人之身.”

41) 『中庸』「十三章」,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42) 『中庸』「二十章」, “修身以道, 修道以仁.” 『중용』인은 『논어(論語)』에서의 인과 차별된다. 『논어』의 인은 공자가 사용한 원개념(原概念)이다. 원개념은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타자에 의존하지 않은 절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으로 통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남상호, 2003: 679).

43) 『周易』「繫辭傳」下1, “天地之大德曰生.”

44) 『周易』「繫辭傳」上5,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과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의 문제는 『중용』에서 수도지위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수도지위교의 교는 문물제도, 즉 문화와 관계된다. 스포츠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활동 문화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한다면 스포츠 문화 역시 도를 따라가야만 한다. 이는 술성지위도의 술이 가진 의미와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술성지위도의 술은 통술(統率)이다. 마치 지도자가 선수를 이끌고 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선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수는 지도자의 지도를 성실히 따라가야만 훈련프로그램을 온전히 행한 일이 된다. 마찬가지로 수도지위교의 수(修)에서 도가 스포츠를 닦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문화가 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만 스포츠가 성숙한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가 도를 추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정해져 있거나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산으로 예를 들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인간에 따른 품절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천명을 부여받은 이상 모든 사람의 행함에서도 도는 드러날 수 있다. 즉 도는 ‘함’을 수반한다. 이때 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선(最善)을 찾아 중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誠之)하는 것을 가리킨다(신정근, 2019: 31). 이는 스포츠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인권과 복지에 문제의식을 두더라도 그 근본에는 성(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린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도의 길이 정해지지 않고, 품절로 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는 성(性)을 따라간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일반인도 지극한 정성(至誠)을 다한다면 하늘의 이치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도를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성(誠)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스포츠에서 인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사로움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 의연함은 선 가운데 최선을 택해 현실의 스포츠에 새로운 질서, 즉 화이부동과 같은 인식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중용』 성 개념의 스포츠 적용은 스포츠가 도의 추구 활동임을 밝혀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IV. 스포츠를 통한 대동 문화 형성

『중용』은 사람을 결집하고 통합하는 역할은 신체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때의 신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도심이 충만한 몸이다. 그러므로 일반인이라면 먼저 도심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신해야 한다. 수신의 방법은 몸속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도심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도심일 때 확충하고 아닐 때는 고쳐 나아감이다(이기동, 2012: 189). 이와 같은 수신은 『중용』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몸 닦기의 대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과불급의 문제 조절과 본성에 부합하는 행동 유도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주희는 이와 같은 수신이 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군자는 자신의 몸을 닦지 않을 수 없다. 몸을 닦으려고 생각하면 아버지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를 섬기려고 생각하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알려고 생각하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을 수 없다.⁴⁵⁾

주희는 『중용집주』에서 개인의 수신이 하늘의 이치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생생의 이치에 근거하여 수신하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된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에 맞게 되는 것이다(仁). 개인적 수신은 친친(親親)을 넘어 타인을 생각하고 인정하여 그들을 높여 대우하는 것까지 선한 영향력을 확장한다(義).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력은 나와 너를 넘어 사회 전반에 작동하는 문물제도까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용』은 하늘이 명한 성(性)에서 출발해서 개인이 따라야 할 도(道)를 거쳐 교(教), 즉 제도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우용순, 2016: 21).

인(仁)은 사람다움이고 의(義)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같다. 현대적 관점으로 적용한다면 인은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 즉 보편적 진리이고 의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실천한 것이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인(仁)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인간다움이 부족하게 되고, 의가 부족하다면 사회적 확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문물제도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문물제도도 수신(修身)의 대상이어야만 사람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인의가 충만하지 않은 문물제도라면 수신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스포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경쟁적 활동이다(안용규·김동규·권오륜·송형석·김홍식, 2011: 33). 제도화된 규칙은 스포츠가 보편적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이다. 이를 수도지위교 관점으로 본다면 스포츠라는 문화에는 이미 인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만물이 함께 어울리면서도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며, 도가 함께 행해지지만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⁴⁶⁾ 이 때문에 『중용』에 근거한 스포츠 이해는 서로 다른 원칙이나 이념 등을 지닌 대상이라도 서로 조화될 수 있게 하는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스포츠가 도를 추구할 수 있는 문화임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신체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독선적(獨善的) 태도이다. 독선은 능히 나를 밝히고 능히 남을 밝히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45) 『中庸』「二十章」. “故, 君子不可以不修身, 思修身, 不可以不事親,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不知人, 思知人, 不可以不知天.”

46) 『中庸』「三十章」. “萬物并育而不相害, 道并行而不相悖”

다. 만약 제각기 독선에 근거한다면 서로의 입장 차이와 이익 우선됨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서로 적대시하는 대립이 일어난다(김장태, 2016: 81).⁴⁷⁾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용』은 자신과 타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세상 만물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중용』에서는 이를 병육(竝育)과 병행(竝行)의 문제로 구분하여 덕과 결부시킨다.

만물이 함께 길러지지만 서로 해치지 않으며, 도가 함께 행해지지만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작은 덕은 냇물처럼 흐르지만, 큰 덕은 만물을 돈후하게 화육하니,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우응순, 2016: 353).⁴⁸⁾

주희는 만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육의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⁴⁹⁾ 그래서 주희는 이를 작은 덕과 큰 덕의 작용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작은 덕은 전체지분(全體之分)으로 전체가 나뉘어 만물에 들어가 있는 리를 말한다. 큰 덕은 만수지본(萬殊之本)으로 만물 존재의 근본은 리 하나라는 뜻이다.⁵⁰⁾ 이는 개체와 우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고자 한 의도이다.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 역시 각 개인에게는 작은 덕과 같은 리(性)가 내재한다. 또한 각 개체에 내재된 리는 다시 큰 덕과 같은 하나의 원리에 근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는 우주 만물의 구동 원리인 동시에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법칙이 된다.

인간에게 내재하는 리가 성(性)이다. 그래서 성(性)을 따르는 것이 생(生)의 구동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큰 덕에 근거한 작은 덕의 소유자다. 큰 덕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여 화합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작은 덕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해진다. 그 덕성은 인(仁)으로 행해진다. 『중용』에서 인(仁)은 원(元)의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인(仁)에 근거한 사람은 품절을 고려하더라도 진실되게 화합하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는 않는다. 즉 『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이부동과 같은 조화로운 결함을 통해 ‘중용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주장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길이 버젓이 실행되고 있다(신정근, 2019: 19). 『중용』은 이를 색은행괴(索隱行怪)로 표현한다. 색은행괴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치를 깊이 추구하고 법도에 벗어난 행실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응순, 2016: 96). 이로 인해 현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올바른, 공정성, 그리고 진실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원리나 원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

을 주제로 한 논쟁은 지속적인 이견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통해 참[眞]을 갈구한다.

시대 정신은 극단이 판을 치는 색은행괴의 세상에서 주위에 널려 있고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평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신정근, 2019: 21). 그 평범의 가치가 화이부동을 통한 성(誠)의 실천이다. 공자는 화이부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자기의 뜻을 굽혀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무리를 이루지만 화합하지 않는다.”⁵¹⁾ 화이부동을 『중용』에서는 중과 화를 대비하여 설명한다. 중은 천하의 근본이라면, 화는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라고 설명하는 것이다.⁵²⁾ 이는 앞서 제시한 만수지본과 전체지본과 의미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우리 스포츠계는 정부 주도의 스포츠 혁신 위원회를 통해 스포츠 정책, 제도, 관행, 문화 전반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스포츠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자 한다(홍덕기, 2019: 29). 또한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시스템혁신위원회는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이전과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본적이라는 것은 뿌리 차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기존 관행의 뿌리 수준까지 뽑는 혁신적, 근본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최의창, 2019: 14).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만수지본은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스포츠 존재의 근본을 리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만수지본이 스포츠 문화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인 리라면, 전체지본은 스포츠 복지와 인권 문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인권과 복지 문제에 있어 인권과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이 만수지본의 리라면, 인간의 구체적 행위 도리가 전체지본의 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만수지본과 전체지본은 전체와 부분이 같은 뜻으로 모이게 한다. 마치 화이부동의 하나 됨과 같이 스포츠 인권과 복지 정책은 추진 부서와 진행형식 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결국 스포츠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만물은 함께 자라면서도 서로에게 해치지 않고 발전하는 것처럼 ‘리’는 스포츠 문화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의 방향 제시가 리로 설정된다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명에 의해 술성하게 된다. 그런데 술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극히 오직 정성(誠)을 다할 때 자기의 본성[性]으로 발휘된다. 자기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본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능히 만물의 본성은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만물의 본성이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⁵³⁾ 그 하나 됨은 오직 인간이 성실함을

47) 『中庸集註』「二十二章」.“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48) 『中庸』「三十章」.“萬物并育而不相害，道并行而不相悖。小德川流 大德敦化，此天地之所以爲大也。”

49) 『中庸集註』「二十章」.“未至於聖，則不能無人欲之私，而其爲德。”

50) 『中庸集註』「三十章」.“小德者，全體之分，大德者，萬殊之本。”

51) 『論語』「子路」23. “子曰，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

52) 『中庸』「一章」.“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

다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와 관련한다. 따라서 스포츠에 성(誠) 사상의 적용은 지극한 신체활동의 성실함은 도심을 충만시킬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천지 화육에 참여하는 일이 됨을 알게 한다.

V. 결론

현재 우리 사회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시류에 편승한 이해와 권리 등만이 강조되는 다원주의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극단의 논리를 타개하여 화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중용』에서 찾았다. 『중용』은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道)를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보편적 정신을 확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용』의 성(誠)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화이부동의 가치를 탐구해 봄으로써 스포츠가 ‘모두가 잘 사는 포용 사회’, 즉 대동사회를 만드는 실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중용』은 우주의 구동 원리와 인간 삶의 구동 원리를 밝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한다면 인간이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삶은 어떤 우주적 원리에 근거하는지를 알 수 있다. 『중용』은 성즉리의 성립을 천, 성, 도, 교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개념이 인의예지의 네 덕목과 관계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이 도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주희는 공자의 표현을 통해 인간 도리의 실천이 선가운데 최선의 태함에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성즉리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자신을 명성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타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일임을 알게 된다.

선을 굳게 잡는 정신이 성(誠)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성지(誠之)이다. 성(誠)은 진실무망한 상태이고, 성지는 사람의 정성으로 실행해야 할 바를 뜻한다. 성지는 신체를 통해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도심이 충만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다. 본고는 이를 현대의 비근한 문화인 스포츠를 대상화하여 도심의 확장을 모색했다. 이에 주목한 것이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전환에 있어 스포츠의 전면적 혁신을 위한 과제, 인권과 복지이다. 스포츠 인권과 복지에 성과 성지 개념의 스포츠 적용은 스포츠를 도의 추구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일이다.

『중용』은 사람을 결집하고 통합하는 역할은 신체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때의 신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도심이 충만한 몸이다. 이것이 수신이다. 수신은 개인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스포츠에 적용하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만물이 함께 어울리면서도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며, 도가 함께 행해지지만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포츠에 성(誠) 사상의 적용을 통해 신체활동의 지극한 성실함이 도심을 충만시킬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천지 화육에 참여하는 일이 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論語, 論語集註, 四書大全, 周易, 中庸, 中庸集註
 금장태(2016). **화합의 길**.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김홍식·안용규(2019). 체육학에서의 글쓰기론에 대한 전통주의자의 시선. **스포츠사이언스** 37(1), 165-176
 남상호(2003). 논어와 공자인학. **중국학보** 47, 677-711
 박재희(2019). **고전의 대문**. 경기: 김영사
 성백효(2019). 大學·中庸集註. 서울: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신정근(2019). **오심, 중용이 필요한 시간**. 경기: 21세기북스
 우운순(2016). **친절한 강의 중용**. 서울: 북드라망
 이기동(2012). 大學·中庸講說.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선경(2018). 중용의 실현 근거로서 誠의 철학: — 존재, 인식, 수양의 측면에서. **공자학** 30, 185-214
 이학준(2016). 스포츠, 대동사회를 꿈꾸다. : 다함께 더불어 즐기자. **스포츠인류학연구** 11(2), 1-24
 홍덕기(2019). 스포츠 혁신, 우리사회의 과제. **우리체육** 21, 29-33
 최의창(2019). 한국스포츠 4.0 : 스포츠선진국의 의미와 조건. **스포츠과학** 149, 10-19

53) 『中庸』 「二十二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